

인도네시아 2017: 뻘짜실라의 귀환과 대선 국면의 도래*

서지원** · 김형준***

국문초록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뻘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뻘짜실라, 정치군인, 최저임금, 인프라, 할랄인증제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NRF-2016S1A3A2923970).

2015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C1011906-01-01)

** 주저자: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suhjiwon@gmail.com

*** 교신저자: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hjunkim@kangwon.ac.kr

바수키(Basuki) 전 자카르타 지사의 재선 실패는 2017년 인도네시아 정치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사건이었다. 그의 선거 패배가 극적이었던 이유는 2016년 10월 이슬람 모독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그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기독교도이며 화인인 바수키 지사가 쿠란 내용을 왜곡하여 이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그를 성도하는 상황이 전개된 후 그에 대한 지지세가 약화되었다.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1차 주지사 선거에서 그는 1위에 올랐지만 결선 투표에서 패배하였으며, 이후 종교모독죄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양한 요인이 작동했음에도 바수키 지사의 재선 실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종교적 변수였다. 하지만, 이를 급진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동일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4년 선거에서 나타난 급진 세력의 제한적인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동원력이 이후에 급격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줄 뚜렷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강화된 이슬람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종교모독에 대한 무슬림의 높아진 민감성(김형준 2013)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는 편이 적절하다.

급진 이슬람의 정치세력화가 핵심 요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종교모독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편입되었음은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주지사 선거는 또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정치 활동을 펼쳤던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집권기 동안의 알리란(aliran) 정치를 생각하도록 한다.

이처럼 과거의 정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데에는 2017년의 정치과정 역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주지사 선거 후 조코위 정부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급진 이슬람 진영의 ‘반공-프리부미(pribumi: 토착

인) 공세에 대해 ‘뺨짜실라(Pancasila) 수호’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사회단체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법을 발표하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사회단체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의 2017년 희생양은 이슬람 단체 히즈부 타흐리르(Hizbut Tahrir Indonesia)로서, 급진적 이념에 근거하여 대중운동을 펼쳤지만 비폭력 노선을 유지하던 이 단체를 해산하는 강수를 정부가 꺼내들었다.

반대와 대응 과정에서 조코위 정부는 뺨짜실라와 함께 경찰력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종교모독 정국에서 티토 경찰청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시위대와 줄다리기를 하고 몇몇 인사들을 내란죄로 체포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으며, 급진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슬람수호자전선’(Front Pembela Islam)의 수장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무르익고 있는 선거 국면 역시 과거의 모습을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예시할 좋은 사례는 정치군인 및 정치경찰의 부상으로, 전현직 군인과 경찰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었다. 이는 군인의 정치 참여가 당연시되었던 수하르토 정권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7년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는 ‘반공-프리부미’를 강조하는 정치 세력의 공세에 대해 조코위 정부가 과거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연상케 하는 권위주의적 레토릭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9년 대선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2파전 구도로 진행되리라 전망된다. 이미 조코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 대다수는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014년 대선에서 패한 그린드라(Gerindra)당의 프라보오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2017년 말 전군사령관에서 해임된 가툼 누르마안토(Gatot Nurmayanto) 등이 대항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조코위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요소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다. 2017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커다란 문제없이 순항을 계속했다. 특히 조코위 경제 정책을 특징짓는 인프라 건설이 2017년에 접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조코위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조코위 정부 수립 후 3년여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가 급격한 충격 없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음은 2019년 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위상을 강화할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리라 예상된다.

II. 2017년 인도네시아 정치

1. 뻘짜실라 대 반공-프리부미: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와 그 여파

2017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역시 ‘아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의 선거 패배와 수감일 것이다. 2012년 선거에서 조코위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당선되었던 바수키 주지사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자 기독교도로서 이중적 소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인적 인기와 업무수행 만족도를 바탕으로 주지사 재선 가능성은 물론 차기 대선의 부통령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그러나 2016년 말 선거운동 중에 쿠란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아혹을 종교모독죄로 처벌하라”라는 구호를 내건 이슬람 대중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3과전으로 진행된 2월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바수키 후보는 43%를 득표하여 그린드라당과 변영정의당(PKS)의 지지를 받은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40%)와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민주(Demokrat)당의 아구스 유도요노 후보(17%)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하기에, 바수키 후보 진영과 아니스 후보 진영은 선거운동을 또다시 두 달 간이나 거듭해야만 했다. 4월의 결선투표에서 바수키 후보는 2월과 차이가 없는 42%의 득표에 그친 반면 아니스 후보는 58%의 지지를 받아 차기 자카르타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바수키 주지사는 선거 직후 열린 재판에서 기소장에도 없던 종교모독죄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며, 남은 6개월의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바수키 주지사의 낙선을 급진 이슬람 정치의 부상과 ‘종교모독 정국’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은 ‘종교모독 정국’이 그의 유일한 낙선 요인은 아니었다는 데 대개 동의한다. 첫째, 선거운동을 주도한 투쟁민주당(PDI-P)은 선거운동 초반에 정당 조직을 그다지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다. 둘째, 바수키 주지사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빈민촌 및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도시빈민들의 조직적 지지를 잃었다. 대표적 빈민단체의 하나인 ‘도시빈민협의회’(Urban Poor Consortium)는 2017년 자카르타 선거에서 ‘아혹을 거부한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아니스 후보 진영과 정책협약을 맺었다(Amalinda 2017). 이에 일각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이해하는 데에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핵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Wilson 2017).

다른 요인들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는 종교 변수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 출구조사에 의하면 바수키 주지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종교에 따른 차이는 확연했다.

또한 그의 업무수행에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자 중 절반이 선거에서는 아니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¹⁾ 이는 2016년 말 종교 모독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자카르타 각지의 모스크에서 바수키에게 투표하면 장례 등 종교 서비스를 거절하겠다는 공지가 이루어지는 등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아후 보이콧’이 진행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Warburton and Gammon 2017).²⁾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조코위 정부의 ‘뻔짜실라 부흥’과 2016년 아후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이슬람 정치운동 및 배타적 민족주의 진영의 ‘반공-프리부미’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토착민이라는 뜻의 ‘프리부미’는 외국계 중에서도 주로 중국계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는 단어로 여겨진다. 많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약탈과 폭력,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던 1998년 5월의 폭동 이후 제도권 정치에서 중국계에 대한 공개적인 혐오 발언이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소수이나마 중국계 정치인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조코위 후보가 사실은 중국계라는 흑색선전이 등장한 것, 2016년 아후 반대 시위에서 급진적 이슬람 정치와 배타주의가 결합되었던 것을 보면 향후 중국계에 대한 혐오가 주류 정치권의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의 시위를 이끌었던 이슬람 단체 연합체인 GNPf-MUI의 의장 박티르 나시르(Bachtir Nasir)는 2017년 5월의 인터뷰에서 운동의 다음 목표는 경제 주권과 불평등의 시정이라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소유한 부와 중국의 경제적 공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Allard and Da Costa 2017). 이러한 와중에 아니스 주지사는 10월의 취임사에서

1) 영문으로 제시된 만족도 선택지는 매우 만족(very satisfied), 다소 만족(quite satisfied), 불만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Warburton and Gammon 2017).

2) 저소득층에서 아니스가 바수키보다 더 큰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적었기 때문으로, 종교 변수를 대입하면 소득에 따른 후보 간 지지를 격차는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바수키 후보가 잘못된 빈민 정책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프리부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론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비록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맥락이 아니라 식민지의 역사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지만,³⁾ 굳이 이 단어를 취임사에 넣은 것은 중국계를 겨냥한 ‘프리부미 정치’의 포석을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공 역시 2014년 대선에서 조코위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함께 불거진 이슈이다. 초박빙의 2과전으로 진행된 2017년의 반튼 주지사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가 공산당 집안 출신이라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2017년에는 1965년에 쿠데타 세력 ‘9월 30일 운동’에 의해 희생당한 장군들을 기념하는 10월 1일의 ‘신성 빨찌실라 기념일’을 앞두고 전군사령관인 가툰 누르마얀토 장군이 방방곡곡의 군부대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1980년대에 수하르토 정권이 제작한 반공 영화 <G30S-공산당의 배신>의 상영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관람하기에는 지나치게 잔인하여(서지원 2012) 교육부에서 초·중학생은 영화를 관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장관도 상영회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툰 사령관은 상영회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같은 시기에는 공산당 출신의 인권피해자들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자카르타의 법률구조재단(LBH)이 개최하려던 토론회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다음날에는 재단 사무실이 이슬람 시위대에 의해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반공주의가 새로이 위력을 떨치는 양상이다.

‘반공-프리부미’ 공세에 대해 조코위 정부는 ‘빨찌실라 수호’로 대

3) 아니스는 네덜란드가 세운 도시인 자카르타의 역사에 대해 “전에는 우리 프리부미 모두가 짓밟히고 패배했지만, 이제는 이미 자유를 얻었고, 그리하여 우리의 나라에서 집주인이 되었다”(Dulu kita semua pribumi ditindas dan dikalahkan, kini telah merdeka, saatnya menjadi tuan rumah di negeri sendiri)라고 언급했다. 아니스 본인은 아랍계 인도네시아인이다.

응하고 있다. 1945년에 수카르노가 선언한 5개조의 국가이데올로기로서 수하르토 시절 정부가 공산당(의 유령)이라는 ‘극좌’와 급진적 이슬람이라는 ‘극우’ 정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치에 이용하기도 했던 뻘짜실라는 포용적 민족주의를 담은 만한 대안적 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코위 정부와 투쟁민주당에 의해 정교분리 원칙 재천명과 애국주의 고취에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미 2016년에 수카르노가 뻘짜실라를 발표한 6월 1일을 ‘뻘짜실라의 날’로 지정하여, 2017년부터는 인도네시아 달력에 공휴일이 하루 추가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뻘짜실라 고취를 위한 대통령 직속 실무단위(Unit Kerja Presiden Pembinaan Ideologi Pancasila)가 설치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뻘짜실라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종종 피력했는데, 2월에는 “민주주의가 너무 나갔다(kebablasan)”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로 인해 뻘짜실라와 모순되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 및 혐오 발언, 가짜뉴스가 성행한다고 이를 제어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⁴⁾ 5월에는 뻘짜실라와 헌법을 전복하려는 집단은 ‘때려눕히겠다(gebuk)’라고 발언했는데, 이 단어는 1989년에 수하르토 대통령이 헌법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천명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이기에 특히 주목을 받았다.

조코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은 사회단체(ormas)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법’(perppu)이 발표되면서 더욱 거세어졌다. 2013년의 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정부가 사회단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권고 이후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했다. 2016년 초, 정부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의 가르침을 결합한 종교단체 가파타르(Gerakan Fajar

4) 조코위 대통령이 예로 든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 극단주의, 테러리즘 등이다.

Nusantara, Gafatar)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7월, 이슬람 단체인 히즈붓 타흐리르(HTI)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직권으로 사회단체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법을 발효하여 이에 따라 HTI를 해산시켰다.⁵⁾ 이 개정법은 그린드라당과 번영정의당, 국민수권당(PAN)만이 반대하는 가운데 10월 의회를 통과했다.

빨찌실라와 함께 경찰력 역시 조코위 정부가 반대파 대응에 활용하는 주요 수단이다. 2016년 말의 종교모독 정국에서 티토 경찰청장은 고립된 조코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시위대와 줄다리기를 하고 몇몇 인사들을 내란죄로 체포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당시 체포된 여성 중 한 명은 시위를 주도한 이슬람수호자전선(FPI)의 지도자 리직 쉬합(Rizieq Shihab)의 내연녀로 밝혀졌으며, 리직은 내연녀와 메신저로 주고받은 사진을 근거로 반(反)포르노법으로 기소되어 5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고 있다. 그 외의 인사들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거나, 내란죄가 아닌 전자정보·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체포된 인사들 이외에도 조코위 대통령을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조코위 언더커버』라는 책의 저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아후의 ‘종교모독’ 연설 장면을 편집하여 퍼뜨린 부니 야니(Buni Yani)는 전자정보·거래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역시 계속되고 있다.

빨찌실라 대 반공-프리부미의 대결은 2018년과 2019년의 선거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구도의 강화가 반대파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반공이나 반중국계를 내세운 네거티브 캠페인은 이슬

5) 히즈붓 타흐리르는 정교분리와 민주주의는 물론 민족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이슬람 법만을 따르는 신정일치의 칼리프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 이슬람 단체로서, 독일과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다. HTI를 해산시킨 것은 2016년의 시위 참가 단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이고, 법원 결정 과정을 생략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바수키 주지사의 종교모독죄 유죄판결 이후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조코위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람 대 반(反)이슬람의 구도만큼 흡인력과 확장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주의 이슬람 단체인 엔우(NU, Nahdlatul Ulama)와 국민각성당(PKB)이 조코위 정부와의 연대를 유지하는 한 ‘적-녹 대립 구도’ 즉 세속 대 이슬람의 선명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힘든 일이고, 게다가 뺄짜실라를 반(反)이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앤더슨이 일찍이 지적했던 근대주의 이슬람 정치의 딜레마, 즉 자바 정치인인 수카르노는 이슬람을 자신의 휘장 안에 넣어 위신을 높일 수 있지만, 근대주의 이슬람 정치가는 이슬람 이외의 상징을 흡수했다가는 영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딜레마 (Anderson 1990, 72)는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2. 2018년 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 각 정당의 선택과 ‘정치군인’ 현상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2019년의 선거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7월, 의회는 전체 의회 의석의 20% 또는 총득표의 25%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만이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담은 선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9년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확립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선거는 각급 의회 선거를 먼저 치른 후 그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을 치르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14년에는 4월 초에 각 주(provinsi)와 기초단위(kota-kabupaten) 및 전국 단위 의회의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5월 초에 확정 발표되었으며,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연합하여 7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2019년에는 각급 의회 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총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

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조코위 정부의 내각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야당’인 그린드라당과 변영정의당, 민주당 및 내각에 뒤늦게 합류한 국민수권당은 2019년의 선거에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대선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수권당 이외에 집권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은 ‘의석의 20% 또는 총득표 25%’라는 현행 제한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결국 현행 제한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2019년의 대선은 2014년의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7월에 통과된 선거법은 의회에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 즉 봉쇄조항을 기존의 3.5%에서 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대선 후보 출마에 대한 장벽이 기존과 같이 남아 있게 된 상황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19년 대선 역시 2014년과 마찬가지로 2파전 구도로 진행될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2017년이 끝나기도 전에 집권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 중 하누라(Hanura)당, 나스뎀(Nasdem)당, 골카르(Golkar)당, 통합개발당(PPP)은 2019년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한 그린드라당의 프라보오 수비안토 후보 역시 재출마를 고려하는 중이지만 자신의 정당 이외에 적어도 2개 정당의 지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의 의회·대통령 동시 선거와 2018년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뜨겁게 달아오른 인도네시아 정가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현상은 골카르당의 리더십 교체와 정치군인 및 정치경찰 현상이다. 2014년 대선 이후 파벌 간의 격심한 대립을 겪어 온 골카르당은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티아 노반토(Setya Novanto)가 2016년 5월 당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분이 정리되는

듯했다(서지원·전제성 2017).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국회의장 역시 맡아 온 세티아 노반토가 부패척결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에 의해 전자주민증(e-KTP) 부패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골카르당의 불확실성은 다시 불거졌다. 사업에 배정되어 있던 5조 9천억 루피아⁶⁾의 예산 중 국가가 무려 2조 3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난 전자주민증 사건은 그 부패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담당하던 부패척결위원회 수사관 노벨 바스웨단(Novel Baswedan)이 괴한들에게 염산 공격을 받아 실명하는 사태로 연초부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한때 ‘의회 대 부패척결위원회’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은 5,740만 루피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당한 세티아 노반토 국회의장이었다. 결국 연말에 세티아는 체포되었고, 당 의장 자리는 아이르랑가 하르토노(Airlangga Hartono)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아이르랑가는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골카르당의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세티아가 결정했던 골카르당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를 일부 교체하는 등 어느 정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직 군인과 경찰 간부들의 선거 출마 역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기(1966-98)에는 군인들이 장관, 주지사 등 단체장, 각급 의회 의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많은 경우 이렇게 민간에 ‘파견’을 나간 고위급 장교들은 자신의 군인 신분을 유지하다가 이후 군부에 복귀했다. 그러나 1999년 군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민간 관료제의 직을 유지하거나 새로 맡고자 하는 군인은 먼저 군부에서 은퇴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Crouch 2010).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는

6) 이 금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2018년 1월 초 환율 기준으로 4,700억 원 정도이다.

여전히 수많은 전직 장성들이 활동 중이며, 군부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유도요노 전 대통령, 위란토 제1조정장관, 그린드라당 프라보오 대표 등 현재 활동 중인 군인 출신 정치인들은 이미 민주화 초기에 군부에서 퇴직하여 민간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오랜 기간 쌓아 온 인물들이다. 현직 군인들은 군부의 제도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당 및 민간의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노련하게 조정해 왔다(Honna 2006). 이에 따라 예산과 기구 등 군부의 핵심적인 이익은 대부분 지켜졌지만, 동시에 지난 10여 년 간 군부의 요직을 맡았던 장성들은 대개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했고, 은퇴 후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⁷⁾

이러한 관례가 2018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허물어지는 중이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서부·중부·동부자바와 북부수마트라 등 전체 유권자의 80% 이상을 포괄하는 17개 주와 154개 기초단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데, 1월 초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에 2017년 후반기에는 이미 정당과 유력 후보 간의 협상이 상당 부분 가시화되었다.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은 후보 중 한 명은 그린드라당과 변영정의당, 국민수권당의 지지를 받아 북부수마트라 주지사 후보로 등록한 에디 라흐마야디(Edy Rahmayadi) 소장으로서, 그는 이미 10월부터 주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으나 2018년 1월의 등록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육군 최고의 요직 중 하나인 전략예비사령부(Kostrad) 사령관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그런가 하면 투쟁민주당은 서부자바 부지사 후보 안톤 찰리안(Anton Charliyan), 동부칼리만탄 주지

7) 2008년에 중부자바 주지사로 당선된 비빗 왈루요(Bibit Waluyo)는 육군 전략예비사령관 경력이 있었지만 이미 2004년에 군부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현직을 지키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다가 선거 직전에 퇴직하는 선례는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아구스 유도요노가 세웠지만, 30대였던 아구스는 계급이 소령에 불과했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계에 진출했다고 보기 힘들다.

사 후보 사파루딘(Safaruddin), 경찰기동대장이자 말루쿠 주지사 후보인 무랏 이스마일(Murad Ismail) 등 현직 고위급 경찰 간부들을 단체장 후보로 지원했다(Marguerite and Margareth 2017; Rusman et al. 2018). 그린드라당과 투쟁민주당의 서부자바 주지사 후보인 수드라자트(Sudrajat)과 투바구스 하사누딘(TB Hasanuddin) 등 전직 장성들까지 썬에 넣는다면 단체장 선거에 나선 ‘별’들의 숫자는 더욱 많아진다.

고위직에 머무르며 정계 진출을 준비하는 ‘정치군인’과 ‘정치경찰’들로 인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직위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에 반공영화 상영회 개최 사업을 벌인 가툼 전군사령관의 경우 임기 초부터 이슬람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여 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12월 말 불시에 가툼을 해임하고 자신이 시장을 지냈던 솔로(Solo) 출신 인맥인 공군의 하디 차흐얀토(Hadi Tjahjanto)를 전군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하디 사령관은 가툼이 임기 말에 지시한 인사이동마저 전부 무효화했다. 최근 ‘조코위 정부의 2인자’라고까지 불리는 티토 경찰청장 역시 2019년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군인과 경찰의 최고 수뇌부가 모두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Ⅲ. 경제 및 대외 관계

1. 거시 경제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초 경제각료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상황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고 심장과 폐도 건강하며, 고혈압도 없다”고 지적했다(Stefanie 2018). 이와 동시에 그는 건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빨리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움 역시 표현했다.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가 순항하고 있음은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도 예시될 수 있다. 2017년 5월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정크 등급인 BB+에서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투자적격 평가를 1997년 경제 위기 이전에 받은 적이 있었음을 고려해보면, 1990년대 초반에 거론된 ‘아시아의 타이거’라는 호평을 20여년 만에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핏치(Fitch) 역시 인도네시아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시켰다(Bank Indonesia 2017). 이 소식을 전하면서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안정유지 쪽에 맞추어짐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꾸준히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은 다른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137개국 중 36위에 올라 2016년보다 5계단 상승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하는 2017 세계경쟁력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6계단 상승한 42위에 위치했다.

거시경제 지표로 본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외부 기관의 평가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1-3분기 GDP성장률은 각각 5.01%, 5.01%, 5.06%이며 연간 성장률은 5.05-5.1%로 예상된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한 연평균 7% 성장, 2017년 전망치 5.17%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2015년의 4.88%, 2016년의 5.02%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Hermansyah 2017).

경제 성장세는 수출 및 투자 증가에 의해 견고하게 뒷받침되었다.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2%, 수입액은 16.6% 증가했다. 2017년의 수출 증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수출 감소세를 전환시킨 것으로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수출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는 1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2016년의 100억 달러 흑자 규모를 상회했다(BPS 2017b).

투자 역시 2016년보다 증가했다. 2017년 3분기까지 투자 실현액(석유, 가스, 금융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13조 루피아(384억 달러)에 달함으로써⁸⁾ 연간목표치의 76%를 달성하였다. 이중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한 318조 루피아(238억 달러), 국내투자는 23% 증가한 194조 루피아(145억 달러)였다.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식품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61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40억 달러), 중국(27억 달러), 미국(15억 달러), 한국(14억 달러)순이었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호조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2-4분기에 각기 48억, 43억, 40억 달러(추산)로 감소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GDP 대비 1.7% 규모로서 2016년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이다.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17년 동안 계속 신기록을 갱신해서 12월에는 사상최고치인 1,301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 1,110억 달러에 비하여 200억 달러 급증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액은 약 355조 루피아(265억 달러)로서 GDP 대비 2.6%로 예상되었다. 이는 2017년 목표치로 제시된 GDP 대비 2.9%보다 개선된 것이고 법률로 정한 3%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조코 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성과를 보여주었다(Nasdaq 2017).

2017년 인플레이션은 전기세 인상, 쌀과 닭, 생선, 달걀 등의 식료

8) 이 절에서 대미 환산 환율은 2017년 중간치인 달러 당 13,350루피아로 계산될 것이다.

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3.61% 상승했다. 이는 2016년의 3.03%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아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가구소비 역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1-3분기 동안 2016년 동기에 비해 4.9% 증가했다(BPS 2017a).

전체적으로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전년도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무역, 투자, 재정, 소비 영역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모습이 가시화됨으로써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도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최저 임금, 인프라 투자 및 할랄 경제

1) 최저 임금

2010년대에 접어들어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급등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를 예시할 좋은 사례는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으로서, 2010년 백 십만 루피아였던 최저임금은 2013년에는 2백 2십만 루피아로, 2017년에는 3백 3십만 루피아로 상승했다. 단 7년 사이에 임금이 세 배나 오른 셈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유도요노 집권 2기부터 시작했는데, 노동자 단체의 강력한 대응, 노동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 등이 합쳐져 이루어낸 결과였다. 조코위 정부에 들어서서도 동일한 기조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2015년 반전이 일어났다. 지방자치제 강화의 흐름 속에서 최저임금의 지역적 편차가 확대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지역 정치인의 입김이 강해지는 양상이 계속되자 최저임금 인상 방식을 규제하는 훈령이 발표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GDP성장률을 합한 비율로 결정된다. 이 규정을 처음 적용받은 2017년 임금인상률 8.25%

는 2016년 물가상승률 3.07%와 GDP 증가율 5.18%의 합이었다 (Sugianto 2017).

2017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었던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앞으로 대면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2016년 임금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초가 되었는데, 이는 2016년도의 지역 격차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두 배 이상이었고,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현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2017년 최저임금이 높은 5개 주와 낮은 5개 주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2017년 최저임금 지역 격차*

		단위= Rupiah(Rp)	
지역	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
자카르타	3,648,035	족자카르타	1,454,154
파푸아	2,895,650	중부자바	1,486,065
北술라웨시	2,824,286	동부자바	1,508,894
방카 벨리통	2,755,443	서부자바	1,544,360
西파푸아	2,667,000	東누사틍가라	1,660,000

* 환율 1달러=Rp 13,350; 자카르타 최저임금=월 273달러; 족자카르타 최저임금=109달러
출처: Sugianto(2017)

꾸준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은 2011년 3,262달러에서 2015년 3,974달러로 상승했으며 2017년 4,000달러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일인당 소득의 지역 편차가 확대되어서, 2016년 자카르타의 일인당 소득은 15,000달러를 넘어선 반면, 東누사틍가라주는 1,200달러에 불과했다. 지역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은 전체적인 빈곤율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6년 전체 인구의 10.7%(약 2천7

백만 명)이었던 빈곤층은 2017년 10.1%(약 2천 6백만 명)로 감소했으며, 도시의 경우 그 비율이 7.7%, 농촌의 경우 13.5%로 도농 격차가 확대되었다(BPS 2017a).

우호적인 경제 환경은 빈곤층 감소와 함께 중산층 규모의 확대를 결과했다.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지만, 세계은행은 2017년 전체 인구의 20%인 5천만 명 정도를 중산층에, 45%를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을 예비 중산층에, 35%를 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집단에 할당했다(World Bank 2017).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자료를 이용한 한 연구는 인구의 35%인 8천 8백만 명 정도가 중산층과 부유층에 속한다고 추산했는데, 이들은 일상적인 가구소비에 매월 2백만 루피아(US\$140) 이상을 지출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HKTDC Research 2017). 중산층 규모를 정확히 밝히기는 힘들지만, 지역의 일인당 소득이 1억 루피아(약 7500달러)를 상회하는 지역에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리아우주, 리아우군도주, 동칼리만탄주, 북칼리만탄주가 포함되며, 이들 5개 지역의 인구가 2천 3백만 명임을 고려해보면,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규모가 확대될 기반이 공고해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인프라 건설

‘조코노믹스’, 조코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특징짓는 핵심요소 중 하나는 인프라 건설이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발전소 건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 격차 해소를 꾀하겠다는 계획은 예산 및 토지수용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서지원·전제성 2017). 하지만, 조코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구축 드라이브는 이전 정부와 달리 구체적인 성과물을 2017년 조금씩 산출하면서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실현가능한 계획일 수 있음을 과시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물은 자카르타와 수카르노하타(Soekarno-Hatta) 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개통이었다. 30킬로미터 거리를 55분에 주파하도록 설계된 공항철도는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트랜스자바, 트랜스수마트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개통 역시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 짧은 기간 안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전면 개통이 아니라 부분 개통을 당연시하는 관행 때문이다.

서부 자바의 메락(Merak)에서 동부자바의 반유왕이(Banyuwangi)를 잇는 1,167km의 트랜스자바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전체 구간은 19개 하위 구간으로, 각각의 하위 구간은 또 다른 하위구간으로 분리되어 건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관행은 전체 개통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건설된 구간을 먼저 개통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통 구간과 토지수용도 하지 못한 구간이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2017년의 경우 516km는 기개통되었고, 433km는 건설 중이며, 171km는 건설을 시작하지도 못했다(Hadi 2017).

부분 개통이 관행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조코위 대통령은 일년에 몇 차례씩 열리는 구간 개통식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었다. 12월 수라바야(Surabaya)-모조커르토(Mojokerto) 구간 중 15.5km의 개통식에 참석한 그는 고속도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상승과 복지 향상이 가능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세계의 모범이 되었던 1970년대를 거론함과 동시에 이후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진일보한 정책적 성과를 부각시켰다(Hadi 2017).

인프라 건설 결과의 가시화는 도로에 국한되지 않았다. 철도, 항구, 발전소의 부분적 완결 소식이 잇달아 보도되었으며, 특히 공항의

경우 뚜렷한 결과를 산출했다. 2017년 북부수마트라 실랑잇(Silangit) 공항이 국제공항으로의 전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고, 서부자바의 커르타자티(Kertajati) 신공항 역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프라 구축 결과가 가시화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속속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사비 31조 루피아의 자카르타 수도권 경량궤도열차(LRT) 건립계획이며, 이외에도 북부칼리만탄에 4개의 신공항, 고속도로 13개 구간의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건설성과가 가시화하고 새로운 계획이 추가되었지만, 인프라 정책은 2015-2019년 사이 4,800조 루피아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획득할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면에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카르타와 반동을 잇는 고속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시하는데, 중국 자본에 기대어 시작된 이 사업은 토지수용, 건설비 증가 등을 포함한 제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결과의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항구 건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2014년 시작한 사업은 3년이 지난 2017년, 계획 대비 6%만이 진척되었다. 발전소 역시 계획된 3만 5000메가와트 중 40% 정도만이 실현되었다.

정부는 민관합작을 통해 자원 부족 문제를 돌파하려 했지만, 위험 부담을 안은 채 민간이 투자, 건설, 유지보수를 맡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자원 마련의 일환으로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이 완료된 트랜스자바 고속도로 구간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임을 발표했다(Jakarta Post 2017).

2019년 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동할 듯하다.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는 그의 치적으로 간주되어 추진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지만 만성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더딘 사업 진척, 그리고 현재까지는 불거지지

않았지만 정경유착과 뇌물 문제 등은 정권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할랄인증제

인도네시아 라면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2016년 중국으로부터의 라면 수입이 71만 달러였던 반면 수입 한국 라면 규모가 878만 달러에 달했음은 그 독보적 위치를 예시한다(박준규 2017). 하지만, 한국 라면에 있어 2017년은 비극적인 한 해로 기록되었다.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DNA가 검출됨에 따라 모든 매장에서 한국산 라면 전체가 사라지는 수모를 겪었다. 9월 삼양라면이 할랄 인증을 받음으로써(김소연 2017) 시장 재진입이 가능해졌지만, 한국라면에 부가된 부정적 이미지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을 듯하다.

할랄인증의 필요성은 2014년 할랄제품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점점 더 높아졌다.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특히 식료품의 경우 할랄인증 표시, 할랄미인증 표시, 할랄이 아니라는 표시 중 하나를 표지하도록 의무화된다고(김형준 2017).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과 할랄인증기관 설립은 한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16년을 거치며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7년 10월 할랄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할 할랄제품보장운영청(BPJPH)이 신설되었다(Yanuar 2017). 할랄운영청은 할랄제품과 관련된 정책 수립, 할랄 표준, 규정, 절차의 확립,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할랄 교육, 할랄감사기관 인가, 할랄감사관 등록, 할랄감사관 양성 등 할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이슬람지도자위원회(MUI)는 새로운 법체제 하에서 제품의 할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할랄 관련

종교적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을 부여받음으로써 실무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할랄운영청의 신설은 할랄제품보장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할랄인증을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할랄제품보장법이 시사하듯, 2010년대 접어들어 할랄은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주요 소비기준으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할랄을 매개로 한 신사업이 출현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오젝 샤리’(Ojek Syari)라 불리는 할랄 오토바이 서비스이다. 남성 기사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에서 여성 승객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히잡을 쓴 여성 오토바이 기사가 여성 승객만을 태우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축되었다.

할랄의 상업적 이용을 보여줄 또 다른 사례는 롬복(Lombok)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랄관광이다. 2015년부터 롬복섬은 할랄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2017년 계획안은 할랄 관광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확대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롬복에서 강조하는 할랄관광의 첫 요소는 할랄 음식으로, 섬 내 모든 음식점과 음식재료가 할랄 인증을 받도록 유도되었다. 5분 이내로 모스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모든 호텔과 레스토랑에 기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투어가이드가 무슬림으로서 관광객의 종교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외부인에게는 생소한 ‘물 문제’ 역시 할랄 관광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서, 화장실과 기도실에서 사용할 물이 무슬림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계획되었다. 할랄관광에 대한 관심 고조는 이전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했는데, 무슬림 친화적 장소가 그것이다. 술집, 나이트클럽, 카지노로부터 격리된 무슬림만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남성 혹은 여성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변 설립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Varagur 2017).

할랄제품보장운영청의 설립은 할랄제품보장법 시행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을 소비에 있어서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 경제에서 선봉에 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천명했다.

3. 한국과의 관계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맞추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관계는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정부가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의지가 강력하게 투영된 것으로서, 이 정책에는 제2위의 교역대상 지역, 제2위의 투자지역,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서의 아세안의 위상이 고려되었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한국-인도네시아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17). 성명문 3조에 거론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점,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양국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분야로서 성명문은 ‘전략적 협력 강화’,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증진’, ‘인적교류 촉진’,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거론했다.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분야에서의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 모색, 방산 분야에서의 지속적 협력 증진이 제안되었

다. 가장 많은 내용이 적시된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에서는 2022년까지 양국 교역의 300억 달러 규모로의 증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 필요에 대한 공감,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을 포함한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체결된 교통분야 협력 MOU, 산업협력 MOU이 지적되면서⁹⁾ 한국 정부의 교통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지식과 경험의 공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언급되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양국 간 투자 촉진, 쌍방향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명시되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 년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10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에 한국기업의 투자와 참여, 인도네시아의 10개 관광지 개발 계획에의 한국 기업 참여, 양국 간 직항편 증설,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국적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 간소화 등이 제안되었다.

양국 정상은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2018년 평창 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상호지원, 양국 간 영사 및 출입국 협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한국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의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와 관련되어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아세안 통합과 중심성, UN, APEC, ASEAN+3와 같은 연합체에서의 협력 심화,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초국가적 범죄 대처를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성명문에는 양국 정상의 국내적, 국제적 정책이 언급되었으며 이

9) 순방기간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경전철 건설, 공공주택 건설, 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중부 봉카 수력발전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에 대한 상호지지가 표명되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prosperity), 사람중심외교(people) 및 평화로운 동아시아(peace)를 골자로 하는 대아세안 비전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고,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인 인도네시아 10개 관광지 개발 계획, 10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확충 정책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양국 간에 진행된 다양한 수준의 교류 증가를 반영했다. 인적 교류를 예로 들면,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인은 2012년 110,209에서 2016년 296,377명으로 급증했으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 2017), 한국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 역시 2012년 328,989명에서 2016년 386,789명으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BPS 2017a: 372).

양국간 교역 역시 최근 증가세를 보여서 2016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7번째 수출국(70억 달러), 8번째 수입국(67억 달러)이었으며(BPS 2017a: 545, 574), 2017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3번째 수출국(84억 달러), 12번째 수입국(95억 달러)이었다. 양국 교역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 들어 이 추이가 전환되었다. 2014년 236억 달러, 2015년 167억 달러, 2016년 149억 달러로 감소하던 무역액은 2017년 180억 달러로 상승하여(관세청 2018) 5년여의 침체기를 거쳐 재도약의 시기에 들어섰음을 드러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 격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허니문 단계에 접어들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 예상된다.

IV. 결론 및 전망

2017년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드러난 ‘빨짜실라 대 반공-프리부미’ 구도가 앞으로도 지속될까? 통합개발당, 번영정의당 등 이슬람주의 정당과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등 이슬람 계열 정당은 현재로서는 이슬람 정치세력의 결집보다는 내각에 참여하여 지분을 얻거나, 2019년 대선에서 자당의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려고 하는 등 각자 개별 정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공-프리부미’를 내세우며 거리의 정치를 주도한 GNPf-MUI 등은 장외세력으로 남아 있다. 이들 중 몇몇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통한 정계 진출을 희망했지만 기존 정당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선거를 거치면서 가톳 전 전군사령관,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 등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또는 LGBT 반대와 간통죄 확대, 주류 판매 금지 등 이슬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권 정치와 장외의 ‘반공-프리부미’ 세력이 연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은 폭탄 공격,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빨짜실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2019년 대선은 예외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5년 전의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선 후보를 연합 공천하라는 2017년의 선거법은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조코위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이후에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변화하는 선거의 룰에 따라 정계가 어떻게 개편될 지 지켜보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이슬람화가 정계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매년 5% 전후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에 비하면 1인당 GDP는 4배에 달한다. 최

저임금의 인상은 중산층의 확대와 소비역량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인 중소득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공항철도의 개통, 신공항과 고속도로의 건설 등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역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기초 하에서 이처럼 발전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구의 10% 이상은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 노동자, 투자자나 이슬람 모독 세력 등을 겨냥한 배제적인 정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거듭나려면 경제적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세청. 2018.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김소연. 2017. “삼양식품, 국내 라면업계 최초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획득.” 『머니투데이』 9월 28일.
- 김형준. 2013.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23(3): 181-215.

- _____. 2017. “이슬람과 할랄 소비: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36(1): 253-294.
- 박준규. 2017. “할랄인증 라면으로 인도네시아 수출1위 지킨다.” 『Real Foods』 12월 8일.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171208000245> (검색일: 2018.01.16)
- 서지원. 2012. “시체 구덩이와 조명: 인도네시아 ‘65년 사태’와 빨찌실라 기념비.” 『아시아저널』 6: 193-219.
- 서지원·전제성. 2017.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 기반 다지기과 ‘정체성의 정치’의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7(2): 213-243.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년호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과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연합뉴스. 2017.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연합뉴스』 11월 9일.
- Allard, Tom and Agustinus Beo Da Costa. 2017. “Exclusive-Indonesian Islamist Leader Says Ethnic Chinese Wealth is Next Target”. *Reuters* May 13.
- Amalinda Savirani. 2017. “Making Use of Politics: Urban Poor Movement in Indonesia after Reformasi.” Paper presented at the “Two Decades After 1998 Reformasi: Achievements and Challenges” Workshop, November 10, Tokyo.
- Anderson, Benedict R. O’G. 1990.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ank Indonesia. 2017. “Historical Indonesia Sovereign Rating.” <http://www.bi.go.id/en/iru/market-data/indonesian-sovereign-rating/Default.aspx> (검색일: 2018.01.16)
- BPS. 2017a. *Statistik Indonesia 2017*. Jakarta: Badan Pusat Statistik.
- _____. 2017b. “Nilai Ekspor Indonesia Desember 2017 Mencapai

- US\$14,79 Miliar Dan Nilai Impor Indonesia Desember 2017 Mencapai US\$15,06 Miliar.” <https://www.bps.go.id/pressrelease/2018/01/15/1416/nilai-ekspor-indonesia-desember-2017-mencapai-us-14-79-miliar-dan-nilai-impor-indonesia-desember-2017-mencapai-us-15-06-miliar.html> (검색일: 2018.01.14)
- Crouch, Harold. 2010. *Political Reform in Indonesia after Soeharto*. Singapore: ISEAS.
- Hadi, Nur. 2017. “Jokowi Determined to Complete Trans Java Toll Road by 2019.” *Tempo* December 20.
- Hermansyah, Anton. 2017. “BI Estimates 2017 GDP Growth at 5.1%, Helped by Exports, Investment.” *Jakarta Post* December 23.
- HKTDC Research. 2017. “ASEAN in Focus: The Indonesian Consumer Market.”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Research-Articles/ASEAN-in-Focus-The-Indonesian-Consumer-Market/rp/en/1/1X000000/1X0A91HG.htm> (검색일: 2018.01.14)
- Honna, Jun. 2006. “Local Civil-Military Relations during the First Phase of Democratic Transition, 1999-2004: A Comparison of West, Central, and East Java.” *Indonesia* 82: 75-96.
- Jakarta Post. 2017. “Sale of Trans-Java Sections to Fund More Toll Road Projects.” *Jakarta Post* October 10.
- Marguerite Afra Sapiie and Margareth S. Aritonang. 2017. “Generals to Run for Governor.” *The Jakarta Post*, October 13.
- Nasdaq. 2017. “Indonesia Parliament Approves 2018 Budget, Deficit Target 2.19 Pct of GDP.” <http://www.nasdaq.com/article/indonesia-parliament-approves-2018-budget-deficit-target-219>

-pct-of-gdp-20171025-00141 (검색일: 2018.01.14)

Rusman Paraqbueq, Sahat Simatupang, Sapri Maulana and Dewi Nurita. 2018. “Jenderal Polisi Penunggang Banteng.” *Tempo* January 7.

Stefanie, Christie. 2018. “Jokowi: Kondisi Perekonomian Indonesia Sehat.” *CNN Indonesia* January 5.

Sugianto, Danang. 2017. “Ini Daftar Lengkap Upah Minimum Provinsi 2018.” *Detik Finance* November 6.

Varagur, Krithika. 2017. “Indonesia Aims To Attract More Muslim Visitors In ‘Halal’ Tourism Push.” *Parallels: Many Stories, One World* November 26.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7/11/26/528010256/indonesia-aims-to-attract-more-muslim-visitors-in-halal-tourism-push> (검색일: 2018.01.14.)

Warburton, Eve, and Liam Gammon. 2017. “Class Dismissed? Economic Fairness and Identity Politics in Indonesia.” *New Mandala* April 19. <http://www.newmandala.org/economic-injustice-identity-politics-indonesia/>

Wilson, Ian. 2017. “Jakarta: Inequality and the Poverty of Elite Pluralism.” *New Mandala* April 19. <http://www.newmandala.org/jakarta-inequality-poverty-elite-pluralism/>.

World Bank. 2017. “Indonesia’s Middle Class Vital for the Country’s Future.”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7/12/04/indonesia-middle-class-vital-for-the-country-future> (검색일: 2018.01.14)

Yanuar, Yudono. 2017. “Pemerintah Bentuk BPJPH, Ini Cara Mendapatkan Sertifikat Halal.” *Tempo* October 15.

(2018.01.18. 투고, 2018.01.19. 심사, 2018.02.14. 게재확정)

<Abstract>

Indonesia 2017: Return of Pancasila on the Ev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UH Jiw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IM Hyung-J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asuki Tjahaja Purnama, Jakarta's Ex-Governor, lost his re-election bid in 2017 and then was jailed on a charge of blasphemy. After his defeat, the rhetorics of Indonesian politics was divided into two opposing sides: anti-Communism and 'pribumi' of the radical Islamic movements and Pancasila of the Jokowi administration. Although Islamic political parties are now preoccupied with their own coalitional politics and survivals, rather than solidarity of Islamic forces, the rising Islamic sentiments confirmed by the Jakarta election indicate that religion will continue to be a key variable in Indonesian politics. Meanwhile, ex-military generals who declared themselves as candidates in the 2018 regional election and the 2019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a few measures used by the Jokowi administration against extra-parliamentary political opponents, remind us of Suharto's New Order. Steady growth continues in economy. The raise

of minimum wage enlarged middle classes and led to a decline of the poverty rate. Jokowi's commitment to building infrastructure has made tangible achieve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is laudable, though any such cooperation must fully incorporate local sociocultural contexts, such as the strengthened halal certification system.

Key Words: Indonesia, Pancasila, military politics, minimum wage, infrastructure, halal

